

## 최근의 무역수지 동향 평가

柳 潤 河\*

금년 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통상적으로 1/4분기에 가장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어 4/4분기에 정점에 이르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년 1/4분기의 적자 수치가 전년에 비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하다.

먼저 최근의 통계 수치를 보면 수출은 통관 기준으로 1/4분기중 9.8%가 증가하여 비교적 건실한 증가세를 유지 하였다. 작년 4/4분기의 10.2%에도 못미치지만 연간 전체 증가율 7.3%를 상회하고 있고 또 작년 1/4분기의 7.2%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금년 들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으로는 그동안 하락세를 지속해 온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고 또 국가별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對선진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對일본 수출은 12.4%나 증가하여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엔고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은 분기중 12.9%가 증가하였다. 작년 연간 증가율 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가세가 뚜렷하게 상승되기 시작하였던 작년 하반기의 증가율 6.6%도 초과하고 있어서 수입 증가세가 그동안 가속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용도별로는 자본재가 20.8%, 소비재 18.1%, 원자재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본재 수입 증가가 주도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같은 수출입의 움직임에 따른 1/4분기중의 무역수지 동향은 공식 통계인 3월분 국제수지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2월까지의 수치(12억 달러 적자)에다 3월분의 통관수출입을 국제수지 기준으로 환산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1/4분기중에 16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동기의 적자가 2억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달러이었으므로 금액상으로 14억 달러, 배수로 8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 93년 연간 무역수지가 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음에 비추어 금년 1/4분기에 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렵게 이룩한 흑자를 한 분기만에 거의 상쇄하는 것이어서 정책당국이나 관심있는 이들의 우려가 공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1992	1993					1994
	I	I	II	III	IV	연간	I <sup>e)</sup>
수 출	168 (11.9)	186 (10.3)	201 (2.8)	205 (9.3)	219 (9.1)	810 (7.8)	197 (5.9)
수 입	196 (5.9)	188 (-4.1)	203 (0.9)	195 (5.5)	204 (6.5)	789 (2.1)	213 (13.6)
무역수지	-27	-2	-1	10	14	21	-16

<표 1> 수출(통관기준) 동향

(전년동기비, %)

	1991	1992	1993		1994
			연간	1/4	1/4
총 수 출	10.5	6.6	7.3	7.2	9.8
L / C	5.2	4.7	6.2	-1.6	11.5
경공업품	0.6	-1.9	-3.0	-6.2	3.0
중화학품	15.7	11.5	13.2	15.2	13.9
(철 강)	6.4	19.1	23.1	36.9	-11.5
(기 계)	15.6	7.8	14.6	17.3	17.6
(전 차)	13.4	10.1	5.4	16.6	4.5
(자동차)	19.3	22.3	54.4	109.7	17.1
미 국	-4.1	-2.5	0.3	4.8	4.6
일 본	-2.2	-6.1	-0.3	-9.4	12.4
중 국	71.4	164.7	94.1	160.1	18.6
E U	10.1	-5.1	2.0	-9.4	11.5
ASEAN	40.3	20.8	8.9	12.5	10.8
중 남 미	36.9	72.4	-0.8	10.9	31.2

<표 2> 수입(통관기준) 동향

(전년동기비, %)

	1991	1992	1993		1994
			연간	1/4	1/4
총 수 입	16.7	0.3	2.5	-4.7	12.9
I / L	9.4	-10.3	4.9	0.1	34.2
식료·소비재	19.8	6.2	2.4	-3.3	18.1
공업용원료·연료	15.1	-1.7	4.2	-0.7	7.3
원 유	27.4	17.4	-4.2	9.2	-20.0
자 본 재	18.2	1.6	0.1	-10.3	20.8
기 계 류	18.9	-5.7	-3.6	-30.2	50.8
전기·전자	17.0	7.5	3.7	6.1	13.4

## 평가와 전망

이같은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서 대체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년 1/4분기중의 수지 악화는 수출이 비교적 건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금년 1/4분기중의 무역수지를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데는 한 두가지 특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즉 93년 1/4분기의 무역수지에는 이례적으로 수출을 크게 하고 수입은 작게 하는 특수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에 추세 판단을 위한 비교의 기준 시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먼저 수출 측면을 보면 상기 <표 1>과 <표 3>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93년 1/4분기중의 통관과 국제수지간 수출 증가율은 각각 7.2%와 10.3%로서 3%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관과 국제수

지 기준의 수출 증가율이 서로 매우 가깝게 움직이는 것이 통레임에 반하여 작년 1/4분기에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이 현저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92년 중반에 통관된 일부 철구조물의 대印度 수출引渡가 93년 1/4분기에 비로소 이루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같은 현상은 금년 1/4분기의 수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금년에는 작년과 정반대로 통관 기준 수출 증가율 9.8%를 국제수지 기준으로는 5.9%로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년 같으면 92년 수지에 계상되었을 수출이 93년 1/4분기에 계상됨으로써 93년 1/4분기의 무역수지를 과다하게 개선된 모습으로 만들고 94년 1/4분기의 수지는 과다하게 악화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 측면에서는 93년 1/4분기가 이례적으로 수입 규모가 작았던 기간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93년 1/4분기중 수입은 4.5%(통관 기준)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 이후 불안심리의 확대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11.8%나 급락하는 등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93년 1/4분기의 무역수지에는 비정상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 시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가상적인 것이지만 만일 위와 같은 불규칙 요인이 없었더라면 93년 1/4분기의 무역수지 적자는 약 17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금년 1/4분기의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전체로 볼 때도 93년중의 무역수지 개선은 수입의 일시적인 저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추세적인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많은데 연간 경상 GNP가 10% 가까이 성장하였음에도 수입은 2% 대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이 그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수입이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93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 같다. 국내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을 보면 작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높아져서 3/4분기에 5.2%, 4/4분기에는 8.7%의 증가를 보였고 이어 금년 1-2월중에는 10.1%가 증가하여 국내 생산활동이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매우 부진하였던 설비투자 활동도 93년 3/4분기부터 반전되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 증가세는 이같은 국내수요의 움직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동안의 실질 수입 동향을 보면 93년 3/4분기에 11.0%, 4/4분기에

13.0%로 높아졌고 금년 1-2월중에도 16.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입의 내역 별로 볼 때 자본재의 증가가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입 증가가 국내수요 중 특히 투자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수입 증가율이 실질 GN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경기 회복기라는 점(과거의 예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회복기의 수입탄성치가 경기 수축기의 탄성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수입 실적이 시차를 두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수입품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물량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설비투자 촉진 및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정부가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는 외화 대출을 들 수 있다. 국내 금리가 11% 수준임에 반하여 외화대출금리는 국제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최근에는 국내 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데다 환율절상 기대 등으로 외화대부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표 4> 산업생산과 실질 수출증가율 추이 (%)

	1992	1993					1994
	I	I	II	III	IV	연간	1-2월
산업생산	9.9	1.0	2.4	5.2	8.7	4.4	10.1
설비투자	8.9	-11.8	-1.8	5.0	9.4	0.2	-
수입	5.1	0.1	2.9	11.0	13.0	6.7	16.9

이 밖에 금년부터의 관세율 인하폭 확대로 전년분 수입을 금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었다던가, 금액상 크지는 않지만 금년 들어 중국 베트남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中低價의 의류·학용품·가전제품 등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이 1/4분기의 수입 증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망을 보면 우선 수입은 국내 경기 확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증가율은 1/4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 면에서 앞서 본 특수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연간으로는 10% 내외, 금액상으로 870억 달러 내외(국제수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불안 요인이 없지는 않은데 국내 설비투자분이 의외로 장기화할 경우, 수입 증가율이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하락세를 지속하던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한다면 이것 또한 수입금액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수출도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엔고 효과

등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10% 내외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이래의 엔고 현상이 최근에 다시 강화되고 있지만 이는 최근 일본의 政情불안에 기인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7월중의 미·일 포괄협상 이후에는 약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엔고 현상이 하반기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우리의 수출에 추가적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 경우 그 주된 효과는 내년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연간 전체의 무역수지는 수출이 890억 달러 내외에 이르고 수입이 870억 달러 내외에서 안정되어 약 2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4분기에 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 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이룩한다는 것이 다소 힘겹게 느껴지지만 예년의 무역수지 변동 패턴으로 보아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수출입에 고유한 계절적 패턴으로 인해서 1/4분기에 가장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어 4/4분기에 가장 크게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데 일례로 수출과 수입을 X-11 방법으로 조정하여 추세 요인과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보면 수출의 경우, 최소치인 1/4분기와 최대치인 4/4분기 사이에 17%의 격차가 있으며 수입의 경우에는 3/4분기와 2/4분기 사이

에 6%의 차이를 보인다. 즉 수출입 전망치의 분기 평균액 220억 달러 내외에서 단지 계절적인 요인만에 의해 수출에서 38억 달러 수입에서 11억 달러 내외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계절적 요인만에 의해 이같이 큰 수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논의에 있어서도 그 절대액보다는 무역 규모나 GNP규모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 규모는 이미 1,800억 달러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에서 각각 0.5%씩의 예측오차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8억 달러 규모의 흑자 또는 적자가 예상 외로 발생할 수 있다.

또 만일 무역수지 흑·적자 허용폭을 경상 GNP의 1% 내외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94년중 달러표시 경상 GNP가 약 3,800억 달러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균형에서 상하 38억 달러 정도의 변동 폭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역수지 10~20억 달러의 향배는 사실상 예측오차의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정확하게 달성하기도, 예측하기도 힘든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

든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표 5> 경상GNP와 무역수지

	(억 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무역수지(A)	-20.0	-69.8	-21.5	20.8	37.6
경상GNP(B)	2,538.1	2,941.8	3,079.4	3,308.3	3,763.3
A/B(%)	-0.8	-2.4	-0.7	0.6	1.0

마지막으로 금년의 거시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수입 증대나 경상 수지의 적자 가능성이 지니는 의미를 간단히 음미하고자 한다. 특히 금년에는 무역수지에서 2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이룩하더라도 무역외 수지에서 거의 같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연간 균형 또는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연초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금년에는 외국인 주식 투자나 여타의 요인으로 연중 100억 달러 이상의 해외자본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100억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8조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본원통화 20조에 비교할 때 상당한 양의 통화증발 압력이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최근의 통화승수 5.2를 고려한다면 40조 이상의 총통화 증발압력이 있는 것이며 이는 총통화 잔액 100조의 40%, 금년 총통화 증가 목표 14~17조의 수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더라도 通安증권이나 여타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중 상당부분을 不胎化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전체적인 통화 압력이 만만치 않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환율이 대폭 절상된다면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 압력은 해소되겠지만 그러나 이 경우엔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어야 한다.

저간의 환율 절상 논의나 물가 불안 논의 등은 사실상 이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수입 증가는 이러한 면에서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 절상 압력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 경제의 확대균형을 돕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데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 적정량 이상의 자본이 유입될 경우, 그 중 일부가 수입의 증가에 의해 상쇄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국내 물가 상승이나 환율 절상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에 의해 해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수지의 장기적 흑자 기조 정착을 위한 수출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국산부품 개발 노력 등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국내 유동성 팽창 및 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수입 증대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